

나스닥시장의 신고가를 지켜보며...

나스닥시장, 2000년 3월 이후 최고치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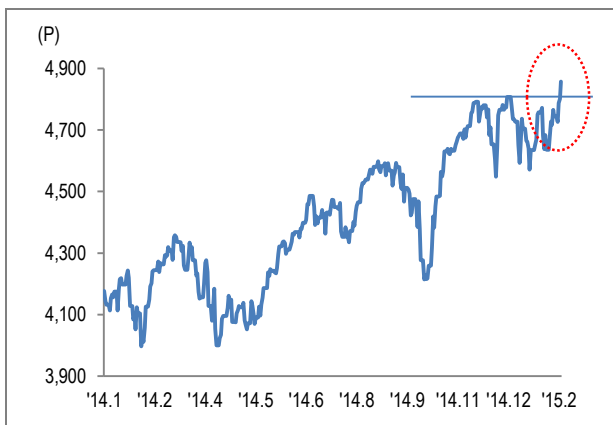
나스닥시장 신고가 기록

지난 12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증시의 나스닥지수가 4,857.61p를 기록하며 지난해 연말 기록했던 전고점을 돌파했다. 지난 2000년 IT버블 붕괴 이후 무려 15년만의 최고가이며, 다우지수, S&P500지수와 마찬가지로 사상최고치(2000년 3월 10일 5,048.62p) 돌파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나스닥지수 내 가장 높은 비중은 바로 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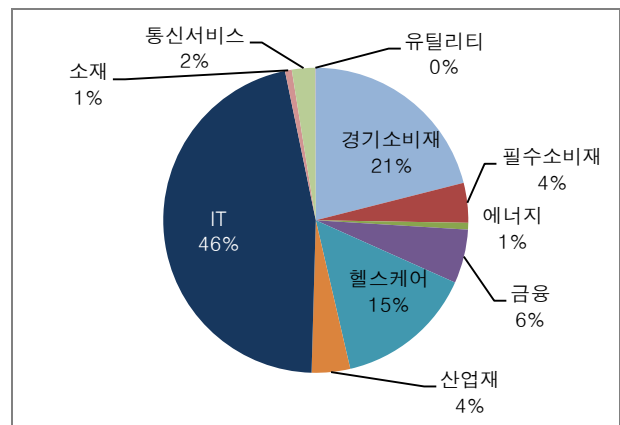
12일 나스닥시장의 신고가를 이끈 M&A를 발표한 익스피디아와 대규모 실적호전을 발표한 시스코시스템즈였지만, 최근까지 나스닥시장의 강세는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을 비롯해 인텔, 텍사스인스트루먼트, 마이크론테크놀로지, 구글, 페이스북 등 IT업체들이 주도해 왔다. 나스닥지수의 섹터별(GICS 분류 기준) 시가총액 비중을 살펴보면 IT 섹터의 비중이 무려 46%를 차지하고 있다.

나스닥시장 전고점 돌파, 2000년 3월 이후 최고치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Portfolio솔루션부

나스닥지수 내 섹터별 비중(2/12일 현재)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Portfolio솔루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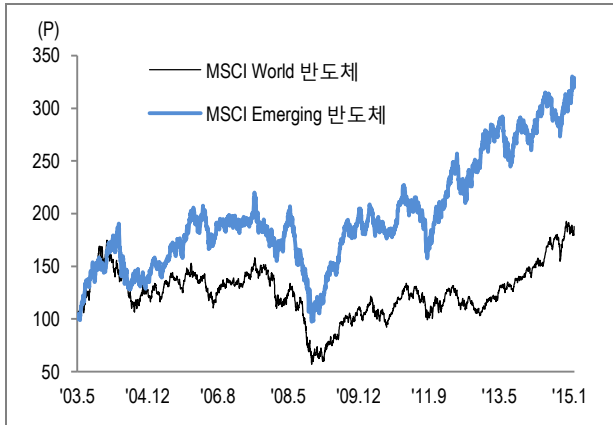
글로벌 IT 섹터 Index 강세 지속

전세계 IT, 반도체 INDEX 강세 지속

미국 증시에서 애플, 인텔, 시스코, 구글, 페이스북 등 대표적인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세계 IT섹터의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MSCI Index를 기준으로 선진국과 신흥국 반도체 지수의 2014년 이후 수익률은 각각 26.4%, 18.2%를 기록 중이다.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가 발표하는 BB율(Book-to-Bill Ratio)은 지난 12월 0.98을 기록하며 전월대비 0.4p 하락했지만, 2013년 이후 2년 동안 무려 17개월이나 1 이상을 기록하며 반도체업황의 호조세를 반영하고 있다(BB율 = 북미 반도체 장비업체들의 출하액대비 수주액. 1을 기준으로 호황과 불황을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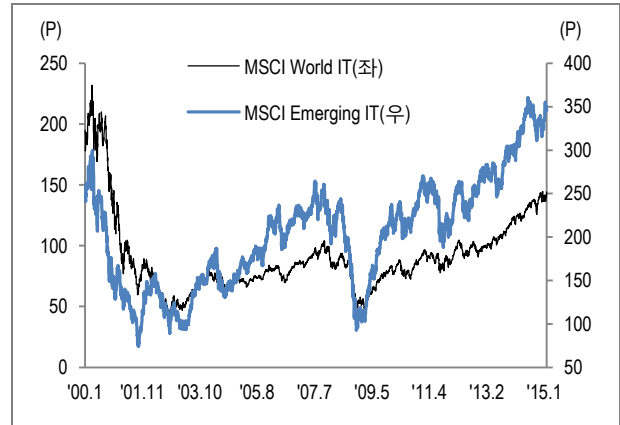
또한 반도체 지수와 함께 MSCI IT Index의 경우에도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강세흐름을 이어가면서 2014년 이후 수익률이 각각 17.2%, 13.4%를 기록하고 있다.

MSCI 선진국, 신흥국 반도체 인덱스 추이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Portfolio솔루션부

MSCI 선진국, 신흥국 IT 인덱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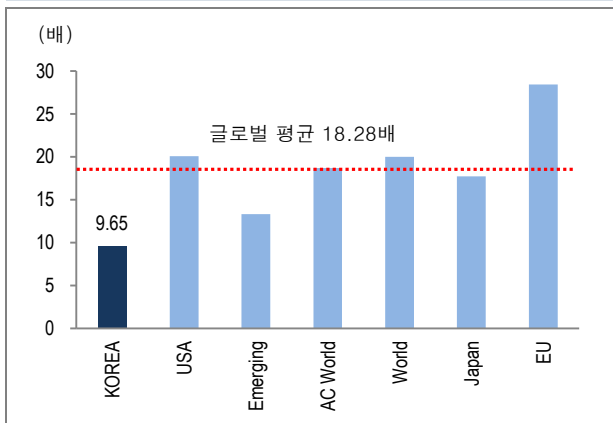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Portfolio솔루션부

국내 IT 섹터의 Valuation 메리트 부각 기대

실적과 가격모멘텀, VALUATION메리트까지 확보한 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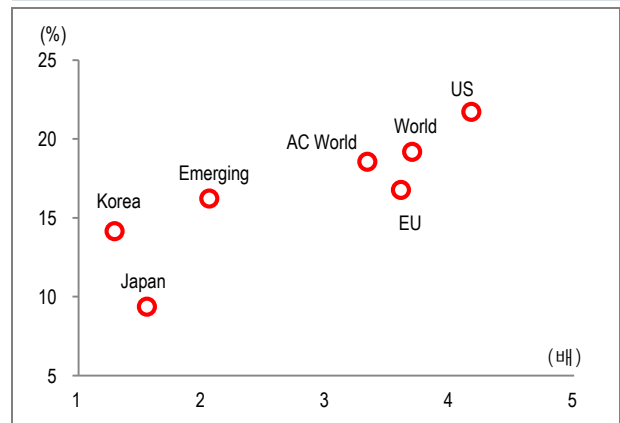
당 부서는 지난 2/10일자 WM Daily ‘이익모멘텀 개선세가 이어지는 업종군에 주목’에서도 실적과 가격 메리트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업종에 관심을 가져보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운송, 생활용품, 미디어, 반도체, 내구소비재/의류 업종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2주 연속 상향 조정되었고, 이 중 반도체업종은 KOSPI대비 17.2%, 13.4% 상승 가격메리트도 유효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적호전 기대뿐만 아니라 Valuation 메리트도 IT 섹터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다. MSCI에서 분류하는 전세계(AC World), 선진국(World), 신흥국(Emerging), EU, 미국, 일본 IT 섹터의 PER 평균은 18.28배이지만 한국 IT 섹터 PER은 9.65배에 불과하다. 또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 ROE가 다소 낮지만 PBR 할인율이 다소 과하게 형성되고 있고, 일본과 비교할 때 ROE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PBR이 낮은 상황이다. IT 섹터에 대한 관심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MSCI 주요국과의 IT 섹터 PER 비교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Portfolio솔루션부

MSCI 주요국과의 IT 섹터 PBR-ROE 비교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Portfolio솔루션부

